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3 장



마운틴 마우스 ~ 1351년 4월

산구 바깥에는 오베르뉴의 눈부신 언덕들이 장막 아래 펼쳐져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고 서풍은 따뜻했으며, 강하고 꾸준하게 불어왔다. 마치 목적 없는 유령처럼, 회오리치는 먼지 회오리가 울퉁불퉁한 지형 위로 솟아오르고 급강하했다. 동쪽 지평선이 깜빡이며,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번개가 점점 더 밝아졌다. 하늘이 천둥소리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는 끝없는 북 소리처럼 뒤섞였다. 폭풍의 전선은 거대했다. 마치 지구의 곡면을 감싸 안고 하늘을 집어삼키는 전기가 흐르는 담요 같았다. 다가오는 폭풍은 드문 기후적 압력 아래 완벽하게 압축된 회전하는 슈퍼셀 이었고, 그래서인지 하늘을 뒤덮은 촘촘한 괴물처럼 보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차갑고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다. 찬란하게 뻗어 나가는 번개 줄기가 하늘을 뒤 덮었고, 마치 위엄 있는 폭풍의 왕이 뻗어 나가는 거대한 푸른 혈관 같았다. 흥분한 구름들이 빛을 발했다. 섬뜩한 초록빛 하늘 아래, 매서운 바람 과 눈을 멀게 하는 구불구불한 기둥, 귀청을 찢는 폭발음을 동반 한 전선이 돌진해 왔다.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더니 유리벽처럼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졌다.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린 물줄기는 수많은 곳을 침수시켰다.

계곡에는 노아만이 알 수 있었을 법한 맹렬한 기세로 얼음덩어리가 쏟아져 내렸다. 바위들이 산산 조각 나고, 계곡의 웅덩이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우박 때문에 소용돌이쳤다.

돌 계곡의 가장 남쪽 끝, 험준한 능선 꼭대기에서, 눈부신 번개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을 뒤로하고, 무려 45핸드(약 42.7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기사의 실루엣이 우뚝 솟아 있었다. 칠흑처럼 검은 갑옷으로 뒤덮인 그 거인은

거인은 칼끝에서 손잡이까지 사람 키보다 더 긴 장검을 휘둘렀다. 마치 구름을 가르듯 강한 일격으로 거인은 여러 거인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깊고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죽음이여, 삶으로 나아가라! 나와라!" 보라색 섬광과 함께 번개가 검에 부딪히자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폭풍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바람은 거세지고 우박이 쏟아지며 빗줄기가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한때 그 형체가 서 있던 자리에는 구불구불 휘몰아치는 회오리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칠흑 같은 악몽으로 변모한 후, 천둥번개의 뒷벽을 따라 북쪽으로 뻗어 나갔다. 소용돌이치는 어둠은 총 3마일 높이까지 치솟아 있었고, 4분의 1마일 너비의 땅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신의 손가락처럼 보이는 그 기둥은 땅 위에 매끄러운 선을 그었고, 마치 뚱뚱한 곤충의 더듬이가 땅을 살피듯 번개가 그 괴물 같은 덩어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휘몰아치고, 뿔어져 나왔다.

그 느릿느릿한 기둥은 마치 지팡이를 짚고 구불구불 걸어가는 노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빗줄기가 방향을 바꿔 휘몰아쳤다. 거센 바람이 울부짖는 가운데,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산구덩이를 향해 육중하게 다가왔다. 바위들이 능선에서 굴러떨어졌다. 거대한 기둥이 산등성이를 넘어 솟구쳐 올랐다. 언덕에서 솟아오른 바위는 계곡 안쪽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산의 자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 깊은 곳에는 새똥으로 얼룩진 채 누워 있는 석상이 있었는데, 그 석상은 낡은 염소가죽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기괴한 형상의 돌처럼 굳은 엘조의 유해였고, 햇빛에 의해 이미 돌이 된 모습이었다. 그의 입은 얼어붙은 비명처럼 벌어져 있었고, 죽은 듯한 눈은 떨리는 박쥐들이 거꾸로 뒤집힌 채 소용돌이치는 동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해지고 얼룩진 옷자락은 지하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돌격하는 전쟁 깃발처럼 펄럭였다.

엘조는 죽은 후, 어쩌면 '공허'라는 다소 기묘한 곳에 갇혀 있었다. 공허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 즉 신성한 경험을 누릴 자격이 없는 생명체들을 위한 영원히 텅 빈 림보였다. 박쥐, 새, 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었다. 공허는 창조의 먼지 쌓인 다락방 같았고, 삶에서 불행했던 존재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가장 높은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원의 공허함, 파리 한 마리가 잡히거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잡히거나, 도살된 어린 양이 마땅히 있어야 할 존재. 전반적으로, 공허의 왕국은 영혼이 없어 영원한 허무에 갇힌 존재들을 위한 까마귀의 사후 세계와도 같았다. 엘조족이 계승한 것은 바로 이 왕국뿐이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속도와 극심한 맹위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산비탈을 강타했고, 마운틴 마우스는 휘몰아치는 모래, 바위, 나무 조각들의 거친 벽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파편들이 산의 표면에 부딪히며 폭발했고, 그 모습은 마치 왁스칠을 한 듯 매끄러워졌다. 하늘 높이에서는 수백만 개의 대전된 영역이 꿈틀거리는 구름 속에서 폭발하며 서로 연결되고 모여 수천 개의 빛나는 가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여러 개의 굵은 번개 줄기로 합쳐졌다. 이 번개 줄기들 또한 하나로 합쳐져 하늘의 모든 힘을 빨아들인 듯한 거대한 기둥을 형성했다.

광! 마치 분노한 신의 창처럼, 찬란한 물줄기가 땅을 강타 하여 산구덩이의 봉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위력은 산을 꿰뚫고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동굴 안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박쥐들이 무너지는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고, 바위와 먼지가 엘조 동상 위로 쏟아져 내려 동상의 다리를 덮고 가슴에 걸쳐진 가죽 가방을 뒤덮었다. 포효하는 바람에 휘몰아치는 동굴 안은 끓어오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바깥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박쥐의 거의 3분의 1을 동굴 은신처에서 빨아 들여 허공의 왕국으로 삼켜버렸다.

회오리바람은 산구에서 쿵쾅거리며 멀어져 갔지만, 곧 계곡을 벗어나 검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침내 바람은 박쥐들이 떠나고, 그마저도 줄어들던 비는 불어난 물웅덩이 위로 가랑비처럼 떨어졌다. 혼란이 끝나자 살아남은 박쥐들은 천장으로 돌아갔고, 동굴은 마치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다만 높은 곳에서 동굴 바닥으로 떨어지던 고집스러운 지붕 돌들이 부딪히는 딸깍거리는 소리와 킬킬거리는 소리만이 간간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 위에는 비명을 지르는 기괴한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고요 속에서, 한때 밀봉되었던 플라스크의 깨진 조각들을 포함한 여러 물건이 들어 있던 낡은 가죽 가방 한쪽 구석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너털너털한 옷자락을 따라 얇은 줄을 이루며 떨어졌다. 신성한 생명의 피는 실오라기 사이로 스며들어 조각상의 화강암 뼈대를 적셨고, 바로 직전, 탁탁거리는 메아리가 어둠 속 고요함을 깨뜨렸다. 마치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였다. 뜨거운 숯불 속의 자갈들. 그리고 피가 흘린 자리에는 조각상의 매끄러운 형태가 갈라져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더욱 가느다란 균열들이 화강암 표면을 가로지르며 마치 미세한 검은 번개 줄기처럼 연결되고 모여들어, 그 모든 끝자락을 감쌌다. 그러나 평 하는 소리는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엘조의 돌 같은 얼굴은 마치 돌 조각 퍼즐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마도 불규칙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조각들의 합일 것이다.

광! 조각상이 폭발하며 화강암 파편들이 동굴 안을 흩뿌려졌다. 가방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흩어지는 먼지 구름 한가운데에는 거친 파편 더미 위에 벌거벗은 살덩이가 솟아올랐다.

"아버지," 엘조는 힘없고 거친 목소리로 신음하며 마치 오랜 탈수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헐떡였다. 엘조는 몸을 뒤집으며 축축한 모래덩어리를 토해냈다.

어쩌면 그 생명체에게는 쓰는 말벌 떼조차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열에 들뜬 듯 온몸이 떨리며, 그 생명체는 몸을 웅크렸다. 헐떡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고통의 비명처럼, 거꾸로 죽어가는 듯한 소리 였다.

치유의 무감각 속에서, 겉으로는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귓속에서 울려 퍼지던 저주받은 듯한 포효는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소리, 마치 잔잔한 빗소리처럼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부활의 고통은 희미한 화끈거림으로만 남고, 감각은 무뎠지면서, 부분적으로 되돌아온 엘조는 잔해가 어지럽게 널린 바닥을 어색하게 기어가며 좁은 길을 헤쳐 나갔다.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며 동굴 입구, 갈라지고 메마른 입술에 닿는 신선한 물의 끊임없는 유혹을 향해 나아갔다.

동굴이 없어진 후,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풍경 속에서 우뚝 솟아 당당하게 서 있는 산구덩이는 꼭대기 부분만 쪼개진 채 폭풍우에서 살아남았다. 흉터투성이의 찢어진 얼굴은 이제 포효하며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의 하얀 물살에 휩싸인 돌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깊은 곳에서 벌거벗은 형체가 나타났다.

입을 찢 벌린 채, 성숙한 남자의 근육질 몸매, 꽤 큰 체격을 감싸는 탄탄한 덩어리가 기어 나와 물웅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예전 수도사였던 이반의 날개 달린 모습과 가장 흡사했을지도 모른다.

나사로는 살아남았다.

~*~

그리하여 부활 후 며칠 동안 나사로는 병이 낫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기력을 회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속에서, 나사로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과 커진 몸집에 맞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식량 자루 속에 묻어두었던 옷 조각들을 꿰매어 허리띠를 만들어 입는 데 성공했다.

나사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는 곧 비행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었고, 그의 커진 몸집은 더 길어진 날개 길이로 상쇄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밤에 동굴 밖으로 나가 산구의 뒷경사와 인접한 언덕 사이에 있는 웅덩이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곤 했다.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몇 계절 동안 불을 보지 못했던 바위 고리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타닥거리는 불꽃을 둘러싸고 있었고, 구운 생선의 연기가 피어오르며 수백 개의 작고 검은 눈동자가 드리운 천장 아래 길고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로의 커진 키와 봄철의 온화한 기후를 제외하면, 산구덩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사로가 태양과 마주쳐 죽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박쥐들이 해질녘 동굴에서 떼 지어 쏟아져 나와 새벽녘이 되기 전에 배부르게 동지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는 동안, 날들은 몇 주로 흘러갔다. 라자로도 박쥐들과 함께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홀로 밤의 찬란한 땅 위를 날아다니며, 산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태양의 첫 광선에 맞지 않도록 늘 경계했다.

그 무렵 그의 식단은 더욱 다양해졌고, 공중 사냥 기술도 향상되었다. 두더지, 토끼, 심지어 가끔 여우까지 잡아 마운틴 마우스로 가져왔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수도사가 필사실의 책 한 권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강조했던 것을 비롯해, 그는 사냥감을 통해 풍성한 수확물을 얻었다. 훈제하고 말린 고기,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든 바지와 가죽 신발, 등이 트인 조끼, 심지어는 날카롭게 다듬은 뼈로 만든 조잡한 도구까지 만들었다.

이반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여러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라자로는 그 기법들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 그의 목에 걸려 있던, 자주 입맞춤했던 낡은 나무 십자가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도구인 동시에 그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그의 이전처럼 예측 가능했던 세상과 거칠고 무한한 세상을 이어주는 마지막 실마리였을지도 모른다.

1351년 5월

밤은 아직 젊었다. 해가 진 지 겨우 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라자로는 동굴 입구 바로 바깥 바위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사냥에서 가져온 다 자란 멧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 사냥감은 지금까지 잡은 것 중 가장 크고 빨랐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십자가에 입맞춤을 하고는 멧돼지 사체를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오래전부터 사냥해 온 멧돼지들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 곳을 지나쳐 가면서 말이다.

수많은 박쥐들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screeching 소리를 내며 라자루스가 불을 붙인 산구덩이로 뛰어들어 동굴 깊숙이 날아들어갔다. 라자루스는 돌아서서 무표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내 것이 더 크다고!" 그는 멧돼지를 어깨에 얹고 신음하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비틀거리며 그들을 뒤쫓아갔다. 균형을 잡으며 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잠시 후, 길게 타오르는 불꽃이 동굴 위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멧돼지의 거친 사체를 비추었다. 멧돼지는 뒷다리가 잘려나간 채 바위벽에 기대어 있었고, 깨끗하게 손질된 다리뼈와 가죽 조각들이 머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었다.

동굴 안쪽, 중심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나사로는 바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뜨겁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고, 고기 굽는 냄새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이 여정을 떠날 만한 상태가 아니거든. 하지만 그래도 날 기억해 주길 바라." 라자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에 매달린 꼬챙이에 고기 몇 조각을 구우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반드시 지킬 거야. 난 정말로 떠날 거야. 내일 말이지. 두고 봐." 그는 동굴 천장을 훑듯 보고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백 마리의 작고 검은 눈을 가진 박쥐들에게 알렸다. 라자로는 한 손으로 옆에 놓인 뼈로 만든 칼을 집어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꽃고 뒤집어 다시 지글지글 구웠다. 그런 다음 불에서 돼지고기 꼬챙이를 꺼내고, 작고 부드러운 가죽 더미에서 세 장을 발치에 놓았다.

"충분히 익히고 말렸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익힌 돼지고기 덩어리를 꺼내 가죽 위에 올려놓았다. 라자로는 다시 박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멀리 떠난다!" 그는 훈제 돼지고기를 가죽과 기름에 싸서 묶음으로 단단히 묶으며 말했다. "넓은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땅으로 간다. 살비티노 수사를 모셔올 것이다."

그와 함께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문돌을 달아야 합니다. 그가 문돌을 달으면, 저는 이제 다 컸으니 보니히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러면 그는 저를 지하 묘지의 수도사로 임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지하 묘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사로는 포장된 고기를 들고 일어나 가죽끈이 달린 염소가죽 침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가방은 물이 가득 찬 물통 두 개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지를 그 안에 쌓아 넣었다.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여분의 식량이었다. "그리고 미겔도." 그리고 타테우스가 햇불을 켜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클 로디우스 수사는 절대로 지하 묘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껄껄 웃으며 가방을 닫고 다시 불 앞으로 돌아갔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투박한 뼈칼로 돌판에서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떼어내며 껄껄 웃었다. "굶주린 라자로 수도사에게 나 어울릴 만한 진수 성찬이로군." 그는 불빛 아래에서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천천히 돌려가며 완벽하게 갈색으로 구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천장에서 커다란 새똥 덩어리가 떨어져 스테이크 위로 튀어 올랐고, 그 충격으로 스테이크는 흠뻑 젖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더 많은 물방울들이 그의 주위로 흩뿌려졌다. 박쥐들이 머리 위로 펄럭였다. "안 돼." 그는 신음했다. 그는 일어서서 천장을 향해 애원했다. "왜?" 그때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의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익힌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수백만 마리 박쥐의 작은 눈이 불빛에 반짝였고, 모두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무가 타는 소리는 점점 짙어지는 공기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밋밋하게 들렸고, 불꽃은 마치 꽃잎이 거꾸로 피어나는 것처럼 오그라들고 말려 들어가는 듯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걸까?" 부자연스럽고 조화롭고 겹쳐지는 목소리, 마치 여러 여성이 동시에 완벽하게 동기화된 어조로 묻는 듯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뒤에서 속삭였다. 그는 그 소리가 귀로 들은 건지 마음속으로 들은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 했다.

라자루스는 획 돌아섰다. 루시파엘이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완전히 나체로 서서 붉은 입술 사이로 개의 송곳니 같은 두꺼운 끝을 드러내며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자 숨이 막혔다. 험클어진 머리 카락 아래로 드러난 새까만 눈동자는 동굴 불꽃을 거꾸로 비추고 있었는데, 그 위로 솟은 불꽃이 푸른빛을 띠며 아래로 춤추는 듯했다. 게다가 상아빛 피부에 흑단처럼 검은 손톱과 붉은 유륜, 그리고 살과 뼈가 겹겹이 쌓인 거대한 날개가 위아래로 펼쳐진 루시파엘은 그 존재만으로도 순수함을 조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루시파엘은 라자루스를 동굴 저편으로 날려버리고는 날개를 획 접은 채 그를 뒤쫓아갔다. 라자루스는 뒷걸음질 치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쇠뿔 소리를 내며 반격했지만, 여전히 뒷걸음질만 쳤다. 루시파엘은 멈춰 서서 팔짱을 끼고는 호기심 많은 개처럼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그를 훑어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 잘 자랐구나.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네가 마치 바위 같았다는 거야."

저 동상은 어리석은 엘조 소년이 죽은 돼지를 끌고 가다가 태양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묘사한 거야. 저기 있는 녀석처럼 말이지.” 그녀는 동굴 건너편에 있는 뼈만 앙상한 시체를 가리켰다.

"그런데 당신은 다시 살아났군요. 게다가 아주 뚜렷한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네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어떻게 얻게 된 거죠? 방금 주조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제 저도 궁금해지네요. 운명이란 게 이토록 불가사의한 걸까요? 아니면 이 특별한 부활이 신의 징조일까요?" 그녀는 동굴 바닥의 잔해들을 훑어보며 한때 나사로를 돌 속에 가두었던 화강암 조각들을 발견했다. "흠,"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를 부르지도 않았다.” 나사로는 쏘아붙이며 뒤로 물러서서 날개를 모았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당신은 이미 죽음을 거스른 거죠. 나사로, 저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아요. 특히 부활처럼 중대한 일은 더더욱 그렇죠.” 그녀는 나사로의 목걸이에 달린 작은 나무 십자가를 발견 하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찌하여 그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도 없는 나뭇가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까?”

나사로는 손가락 사이에 십자가를 꼭 쥐고 말했다. "이건 기도 십자가예요. 제 신앙의 상징이죠.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주장을 생각해 보려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렸지만, 이내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며 쓰러졌다. “신을 경외하는 엘조가 사제의 조각상을 달고 다닌다고요?” 그녀는 꺾꺾 웃었다. “세상에 이런 변태적인 일이 또 있을까.”

“너는 왜 왔느냐?” 라자로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두 손을 뒤로 젖히고 그에게 다가가며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멩이들을 발로 차 버렸다. 발톱을 검게 칠한 채였다. 라자로는 굳건히 서 있었다. "당신이 마음대로 저를 부르거나 빼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저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항상 거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돼지 뉘속에 있었습니다."

“돼지 안에서?”

“당신이 돼지의 눈을 들여다볼 때,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앞에서 말을 멈추고는 말을 이었다. “이봐요, 당신이 죽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돼지를 보낸 건, 배고픔처럼 단순한 것이 당신을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걸 돌에 새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당신을 시험했고, 당신은 실패했죠. 결국 당신이 돼지를 죽이는 대가로 당신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루시파엘은 활짝 웃으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나사로여,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치관을 타협 했죠.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예요?” 그녀는 동굴 벽 옆에 놓인 그의 최근 사냥감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을 죽이는군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어쩌면 당신은 가치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치를 두는 건가 보군요, 그렇죠?”

“돼지는 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땅의 짐승들에게 적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사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 그녀는 마치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운 듯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인다면, 그런 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규칙?"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넌 그러고 싶겠지."

"알겠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엘조,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천국이나 지옥을 본 기억이 있나요? 하다못해 뭐라도요?"

나사로는 시선을 피하며 "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단순한 진실 하나만을 드러낼 뿐이군. 네가 깨닫기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진실은 네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사로. 네 아버지와는 달리 너는 엘조야. 네가 죽인 돼지처럼 땅의 짐승에 불과하지. 그러니 너에게는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어. 자, 내 질문에 답해 보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는 어깨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주님, 저는 제 신앙이나 그분의 신성한 뜻에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녀는 쏘아붙였다. "그런 생각들이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그 이후로 배운 모든 것의 초라한 토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새롭지만 씩씩한 개념들을, 설령 합리적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완강히 부인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몸을 돌려 동굴 안을 서성이며 바닥을 살피고는 여전히 설교하듯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나머지 세상적인 인식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어쩌면 가혹한 세상의 진실에 더 가깝게 맞춰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약돌을 걷어차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신의 기반을 다시 생각해 본다니. 너무 불안해요. 단단해 보이는 돌들을 흔들어 보니 그 안에 수많은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집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러고는 몸을 돌려 그에게 다가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라자루스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엘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에 왔어. 너는 내 엘조 자식들 중 유일하게 다시 태어난 자이고, 유일하게 왕좌의 빛을 지닌 자이기도 하지. 하지만 돌로 변한 몸으로는 스스로를 부활시킬 수도, 네 머리에 빛을 비출 수도 없었어. 게다가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 리는 없지. 이제 너를 되살린 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 주렴." 루시파엘은 생각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기억해 보렴, 라자루스. 누가 너를 키웠니? 성직자였니, 아니면 마법사였니?"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돌렸다. "꿈도 꾸지 않은 잠, 그저 짙은 어둠뿐 이었던 것 같아요 ."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머리를 휩쌌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움켜쥐고 더욱 움츠러들었다. 루시파엘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고, 그의 기억을 또렷하게 들여다보았다.

"네 마음의 눈을 보여줘 ." 루시파엘이 나지막이 속삭이며 우아하게 그를 추격했다. " 엘조, 누가 널 부활시켰지?" 그녀가 그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동굴 벽이 더 이상의 후퇴를 막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정신적 추출을 계속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인생의 기억이 살살이, 그러나 급하게 넘겨진 책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각의 섬광으로 가득 차 굉음을 냈다. 그녀는 그를 파헤쳤다. "누가 당신에게 다시 육신을 주었나요? 누가 당신에게 그 빛을 비추었나요?"

또 다른 천사인가? 아니면 바로 그 보좌인가? 대답해라!

"기억나지 않아요!" 라자루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고통이 멈추고 시야가 맑아지자, 루시파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 자네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군. 그래, 이제 자네 말을 믿겠어." 그녀는 대답하고는 곧바로 한 발짝 물러섰다. 아마도 그에게 정신을 차릴 시간을 잠시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자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게, 내 사랑. 자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건 잘된 일이야.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는 모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

자, 네가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들을 귀가 있으니, 네가 늘 궁금해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지.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렴. 바로 전지전능한 이해란다." 그녀는 어깨 너머로 날개를 지나쳐 장난기 가득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야, 네 그 불타는 호기심이 마침내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자로에게는 그녀의 이교도적인 시선과 완벽한 몸매가 역겨웠을 지도 모른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묘한 씁쓸함과 순수함이 뒤섞인, 죄악만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몹시 당황한 그는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악 그 자체예요."

"그리고 새긴 우상은, 당신 목에 걸린 저 성상처럼, 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녀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언급하며 순진하게 물었다.

나사로는 기도 십자가를 꼭 움켜쥐었다.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위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새긴 우상이 아닙니다."

"이봐요, 나사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실망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그런 처형 방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만약 그를 산 채로 불태웠다면, 당신은 불타는 화형대에 매달렸어요? 아니면 교수형에 처했다면, 당신은 매듭진 밧줄을 목에 걸졌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의 형상을 몸에 두르겠어요?"

만약 그들이 그를 몰에 빠뜨려 죽었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동굴 바닥의 먼지를 걷어차며 말했다. "아니, 애야, 네가 만든 조각상은 그저 인간이 만든 기묘한 처형 도구의 형상일 뿐이야. 그 이후로 나는 그 도구에 의해 죽은 많은 악인들의 영혼을 거두어 왔지."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아니시죠. 당신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악인들의 영혼만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를 깔보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해도 되겠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경고하듯 말했다. "내 피가 네 혈관에 충분히 흐르고 있으니 내 분노를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겠지, 라자루스."

"하지만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신앙에 사로잡힌 짐승 같으니." 그녀는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채 땅을 서성였다. "나사로야, 내 질문에 답해 보렴. 만약 내가 네 예수를 보호하고, 그를 심판하기 전에 재판관들을 죽여서 그의 목숨을 구했다면, 그것은 악행이 되는 것일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다." 를 언급했습니다.

"흠. 만약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죽여서 악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일까? 악을 없애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일까?"

"그건 악한 행위일 거야. 그리고 악은 여전히 존재할 거야. 바로 너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이시기에, 네가 그것을 죽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루시파엘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뛰어올라 그의 얼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마."

"나라고?" 그녀는 나사로를 동굴 안으로 더 깊숙이 끌고 가며 고함을 질렀다. "인간은 내 것이다!"

"세상은 내 것이다!" 라자로는 동굴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이제 네 혀를 다스려라, 엘조!"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라자로와 엘조의 눈은 마주쳤다. 검은 눈동자와 푸른 눈동자가.

마침내 그는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분노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겠소." 루시파엘은 씩씩거리며 동굴 중앙으로 달려갔다. 라자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좋아, 그럼." 그녀는 대답하며 다시 돌아섰다.

그에게 "내 엘조로서,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함부로 입을 열기 전에 나와 관계에서 자네의 위치를 생각해 보네."라고 말했다.

"그럼 이제 내 생각을 말해 보겠다." 라자로가 뒤이어 말했다.

그녀는 동굴 중앙을 서성이며 그를 응시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처럼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 신이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당신 주장대로 말이죠?"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가슴에 있는 크고 붉은 눈을 자랑스럽게 받쳐 들며 팔짱을 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사로, 네가 죽어 있는 동안 나는 세상 사람들의 절반을 죽였다. 마침 두 남자가 발을 갈고 있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을 죽였지. 두 여자가 허리를 굽혀 곡식을 갈고 있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을 죽였어. 두 아이가 흙을 파며 놀고 있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을 죽였지. 자, 이제 너에게 묻겠다. 그때 너의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지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네 앞에 서 계시지 않다면, 어디에 계시겠느냐?"

"만일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행에 대해 너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나 말이야?" 루시파엘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되받아쳤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느냐?"

훨씬 더 큰 악행, 즉 지구에 대홍수를 일으켜 거의 모든 짐승을 죽이고, 구름 처럼 깊은 바닷물로 모든 나무와 관목을 짓밟고, 태어난 아이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의 목구멍에 헤아릴 수 없는 바닷물을 쏟아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 그렇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하나 되어 비명을 지르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집단적인 분노는 하늘조차 침묵하게 만들고 무서운 귀를 기울이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많은 나무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보니, 나는 그 나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로 합쳐져 숨 막히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온 숲이 울부짖고, 나무 꼭대기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짙은 바다. 그리고 그 짙은 바닷물 속 깊은 날, 나는 모든 씨앗들이 소금물에 흠뻑 젖어 질식해가는 모습까지 보았다. 그 열매들의 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세상의 울부짖음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천사들의 합창조차 압도할 만큼 컸다.

나사로야, 이처럼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대홍수를 자초한 것입니다." 라고 나사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도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루시파엘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길고 검은 손톱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돌맹이를 하나씩 떼어냈다. 그녀는 동굴 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의로운 자는 결코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나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 보세요. 이 홍수를 일으킨 것이 불의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 정말 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신가요? 평생 동안, 그토록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응답해 주셨나요, 나사로? 그리고 왜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나사로는 귀를 납작하게 하고 그녀에게서 살짝 물러나며 대답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섭리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악담을 하고 있다."

네가 아는 것이 그것뿐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악한 혀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유혹이라고요?” 그녀는 동굴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뒤돌아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동굴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다. “나사로야, 지식과 통찰력을 모두 가진 자가 자신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어머니가 어찌 자기 자식을 영원히 방어리와 눈멀게 하겠는가?”

“아니요.”

“사랑하는 나사로야, 진리가 어찌 하나 이상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진실은 진실이다.” 라고 라자루스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두 손을 뒤로 젖혔다. “대답은 잘했군요. 자, 이제 이것만 물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에덴의 울창한 숲에서 누가 인간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까?”

지식과 통찰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그의 눈이 영원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단 말인가?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도록 빛 가운데서, 누가 사람을 그런 열매로 유혹하여 그의 눈이 진리를 향해 열리게 하였단 말인가?”

그러자 그녀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나사로야, 내가 묻노니 누가 진리를 가리는 자인가?”

유혹하는 어머니, 유혹하는 신, 아니면 믿음의 근본을 의심하게 될까 봐 완강히 외면하는 눈먼 자아?

나사로는 주님을 변호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늑대 앞에 시체를 던져 놓고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유혹하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또 누가 그런 열매를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유혹자가 그랬어!

“너는 그러지 못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바보에게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주지 않겠어요? 오, 하지만 저는 그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앞에는 무지함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을 거부하는군요.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내 사랑 열조, 만약 네가 단지 인간이었다면, 내 앞에서 그토록 고의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너를 진작에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지배하려 드는 것과는 달리, 나는 악행뿐 아니라 선하고 자비로운 행위까지도 저지를 수 있기에, 너를 살려 두겠다.

나사로는 그녀의 주장을 생각해 보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선한 행위도 자비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 없는 단순한 행위일 뿐입니다.”

루시파엘이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악한 말만 하고 악한 행동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오직 악만이 존재하는 존재가 악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사로야, 네 신이 선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나사로는 팔짱을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병어리와 눈멀게 한 것이 아니다. 대답해 보아라.”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검은 손톱으로 동굴 바닥의 돌을 툭툭 두드려 밖으로 튕겨냈다.

찰칵! 라자루스는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낚아챘다. 그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눈썹을 살짝 치켜올린 그녀는 아마도 그의 빠른 속도에 감탄한 듯했다.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란 다." 그녀가 말했다. 라자루스는 그것을 돌려보니 불빛에 반짝이는 크고 윤기 나는 투명한 보라색 보석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보석의 반짝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자, 이 기도석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걸로 내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내 행동이 선했나요, 악했나요?”

라자루스는 시선을 들어 올렸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돌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이 저를 때리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바란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침묵에 잠겼다.

루시파엘은 껄껄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래, 마저 끝내렴, 라자루스.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건 자선 행위일 테니까." 그녀는 두 손을 번쩍 들며 미소 지었다.

“자, 여기 네 어머니가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구나.” 라자루스는 선물을 살펴본 후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보석을 똑같은 열정으로 살펴보았다.

"이 색깔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당신도 이 색깔이 마음에 드세요?"

“이런 돌은 처음 봐요.”

“당신이 이런 선물을 좋아할 것 같아. 이건 그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 동굴에서 나온 거야. 이보다 더 놀라운 기도석들이 많고,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색깔의 기도석들이 있지. 나사로, 원한다면 이 훼손되지 않은 동굴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당신이 이것들을 발견한다면, 세상 모든 왕국의 부가 당신 발밑에 놓이게 될 거야. 이 모든 기도석들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어, 나사로. 원하겠나?”

라자루스는 아름다운 보라색 수정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정은 속까지 투명했고, 매끄러운 여섯 면이 양 끝에서 날카로운 뾰족한 끝으로 모여 있었다. 그는 루시파엘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다.

“당신이 내게 이것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악으로 유혹하려는 것입니까?”

루시파엘은 콧방귀를 끼고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다시 서성거리며 제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간단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돌을 굴러 동굴을 열어주세요. 그런 행동에는 악이 없습니다. 동굴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 돌들을 내게 주고 싶었다면, 하나만 만들었어야죠."

당신은 그들을 모두 나타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나타나게 했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악마이면서 직접 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 동굴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니, 제가 동굴을 열면 악을 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당신이 동굴이 열리는 것을 악으로 여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자녀가 악을 행할까 두려워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 나아가, 악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창조물이 파괴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악을 막는 것이 선을 억누르지 않는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

그는 “선행과 악행, 그리고 그 행위의 의도 사이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 행위의 결과는 당신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동굴을 연 행위, 즉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나사로는 보석을 동굴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나는 너를 도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의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저 저를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창백한 허리에 손을 얹고 그를 노려보았다. "글쎄요, 라자루스,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말이죠. 당신은 니콜라스라는 성인에게 또 다른 성인 오디노의 성혈이 담긴 병을 운반해 달라고 약속했더군요. 그리고 그 피를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있는 살비티노라는 또 다른 성인에게 전해 줘야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고 운명적인 일로 그 피가 당신에게 쏟아졌고, 이제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했군요. 저도 그 이유를 짐작이 갑니다."

그런 일이 우연히, 그것도 세 시즌 이상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는 건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니, 이제 우리 둘 다에게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각을 통해 당신이 나의 또 다른 엘조 자손인 나라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당신을 타락시킨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성직자들에게 타락했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은 그와 매우 닮았군요. 남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신앙, 의무, 그리고 행동 양식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어찌면 그들이 당신을 그들과 충분히 닮았다고 여겨 당신들을 그들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 그래요, 두 사람 말이에요.

너희는 쌍둥이 형제가 될 수도 있었으리라. 만일 네 이름이 나사로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너를 부활한 나라스민으로 삼았을 것이다.

나라신이 남긴 마지막 증언을 떠올리며 라자로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를 담장 너머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껄껄 웃었다. "운명이 내게 유리하게 작용했군요. 내가 나라신을 풀어주었다면, 그는 당신 마음에 새겨진 그 글을 결코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더니, 씨익 웃으며 낮은 언어로 그에게 말했다. "Eca tinum mi turnum ruva fler. Eca shuthi tularn zuchum. 이 말들이 당신에게 무슨 뜻인가요, 나사로?"

라자로가 대답했다. "나람신 성직자가 그 글을 썼습니다. 그날 그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글이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 형제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렇죠? 나사로,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까?"

"나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람신처럼 당신도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내 종족의 말, 즉 천사들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알죠, 왜냐하면 당신은 내 종족에서 왔으니까요. 씨앗이여. 다른 엘조들과 마찬가지로, 너는 천사의 언어를 알고 태어났지만, 이 글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만약 네가 인간 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더라면, 너와 같은 종족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너는 모국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녀는 보라색 보석을 들어 올려 그 여러 면을 살펴보며 라자로에게 말했다. "네가 어머니의 자유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단다, 얘야. 네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녀는 보석을 던졌다가 다시 받아들고는 그에게 영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영혼으로만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제 진정한 모습은 거대한 봉인, 당신이 열어줄 문 너머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읽으셨습니다."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경에는 거대한 심연으로 통하는 거대한 봉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수도원 문석이 그 봉인이라면, 이미 열려 있는 셈입니다.

루시파엘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건 일부분일 뿐이야. 두 개는 열려 있고, 아직 세 번째가 남아있지. 대봉인은 세 개의 봉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개 모두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해. 마지막 봉인이 닫혀 있는 한, 나는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이 문 반대편에 서 있으니, 자네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할 거야."

그것은 내 자유의 열쇠이다.

그는 지하 묘지에 갇힌 죄수를 떠올렸다. 라자로는 그녀에게서 물러섰다. "나는 돕지 않겠습니다. 너."

"오, 당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녀는 그가 동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다. "당신은 나람신의 책을 읽음으로써 저를 가두고 있는 바로 그 봉인에 새겨진 모든 주문, 모든 구절, 모든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봉인 말입니다."

이 구절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낭송하면 세 개의 봉인 중 어느 하나라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봉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구절들을 어떤 순서로 낭송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내게 돌을 굴러 동굴을 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 그 돌은 또 다른 문돌이고, 동굴은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바위 움푹 들어간 곳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이것은..."

"그게 바로 당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서 살브 수사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오, 정말이로다! 너는 이탈리아로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봉인이 네가 그 성인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수도원의 대성당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데려오는 대신, 나는 네게 이 마지막 봉인을 열어 달라고 명한다. 그리고 네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사로는 그녀가 언급한 계명을 설명하려 애쓰며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다. "잘했어, 라자루스. 진실을 밝혀냈군.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너 곤경에 처하게 될 거야.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악마를 모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네가 읊은 말은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간단히 말해서, 너 사람이 아니고 협상할 영혼도 없어. 너 엘조, 그저 짐승일 뿐이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짐승과 마찬가지로, 네 영혼은..."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는 자신을 변호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단지 내게 영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버리지 는 않겠습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는 짐승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짐승조차 새끼를 더 보살피는데, 나는 너를 어머니로 존경하지 않겠다 .

루시파엘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그에게 달려들어 송곳니를 그의 얼굴에 들이대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널 죽여버리겠다! 너 목숨 외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 삶은 전부야! 그것이 너의 영원이지!" 그녀는 날개를 휙 잡고 그에게 공간을 내 주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나라민의 말을 빌려 칸첼로의 봉인을 풀어내시오 . 나를 위해 이것을 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영생, 즉 영원한 육신을 주겠소. 그것과 함께 당신은 어떤 영혼도 줄 수 없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요. 이것이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이요. 불멸의 영혼이 엘조에게 약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요. 열어 보시오, 나사로여 . 영원히 사시오."

그는 억지로 침을 삼키고 어두운 동굴 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 오직 칙흑 같은 어둠 만 이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듯 공허하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

"나사로, 당신이 저를 거부한다면, 저는 당신을 여기서 당장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의 얼굴을 자애롭게 살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깊은 한숨을 쉬며 목이 메어 말했다. "난... 이건 잘못된 거야... 난 할 수 없어."

루시파엘은 몸을 돌렸지만, 곧 빙글빙글 돌았고, 눈은 마치 칠흑 같은 단검 같았다. 그녀는 검은 손톱으로 허공을 할퀴며 마치 상처를 내려는 듯 휘둘렀다. "이제 그만!" 그녀는 뒤를 노려보며 투덜거렸다. "Veni, vita ad vitam. Altera pars facta."

그러자 순식간에 돼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나사로는 깜짝 놀라 보니 방금 전까지 죽어 있던 멧돼지가 마치 육지에 좌초된 물고기처럼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살아난 짐승은 겨우 세 발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멧돼지의 콧김과 썩썩거리는 소리 너머로 그에게 소리쳤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어리석은 자는 금세 무덤에 묻히게 마련이야! 자네도 이제 그렇게 될 걸세, 엘조!" 경외감에 휩싸인 라자루스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커다란 구멍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멧돼지가 루시파엘을 향해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뒷다리를 잡고 있던 그것은,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짐승을 꾸짖었다. "네 고통은 내 발밑에 있는 게 아니야, 돼지야!" 그녀는 나사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바로 저거야! 엘조가 네 엉덩이를 난도질한 거야!" 멧돼지는 나사로를 향해 돌아섰다. 마치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깨닫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듯,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안 돼! 저것 좀 봐!” 루시파엘이 고통을 질렀다. “저 녀석이 고통받는 걸 봐! 네가 저 녀석의 다리를 흠쳤잖아!” 라자루스는 슬쩍 쳐다보니 멧돼지가 끔찍한 상태를 온몸으로 보여주려는 듯 킁킁거리며 빙빙 돌고 있었다. 잠시 멈춰 서서 그를 응시했다. 마침내 짐승은 숨이 막히는 듯한 발작을 일으키더니 오줌을 싼고, 라자루스는 다시 그 끔찍한 광경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비웃는 루시파엘에게 중얼거렸다. “네가 휘두르는 건 속임수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라고.”

루시파엘은 멧돼지 주위를 돌아 그에게 다가가 투덜거렸다. "오, 정말 생생하군, 라자로. 네가 죽은 순간처럼 피가 끓어오르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리고 저 녀석은..."

"네가 왜 그 다리를 흠쳤는지, 왜 죽였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기억하느냐?"

나사로는 자신을 변호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짐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꾸짖자 멧돼지는 썩썩거리며 불평했다. "네가 그 말의 의미를 왜곡한 거야! 터널 속으로 쥐를 쫓아간 성인에게 네가 했던 말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 그리고 양동이를 던져서 그 쥐를 구했다고 해서 네가 신이 된 기분을 느끼지 않았어?"

나사로는 대답을 거부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그 성자를 흑사라도 거대한 악마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보잘것없고 죄 없는 쥐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 쥐를 당신 자신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단지 불쾌하게, 추하고 불경스럽다고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죽이려 드는 거대한 악마에게 쫓기는 당신 말입니다.

라자로의 당황한 척 눈썹을 찡그리며 그녀 너머를 바라보았다.

다리가 세 개인 멧돼지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그랬겠지." 루시파엘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마음이 내게 이미 고백했듯이 말이야." 그녀는 두 손을 뒤로 뺀고 날개를 꼼지락거렸다.

"당신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런 확신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칸첼로 가문의 봉인을 풀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 일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기울었던 노력과 참견쟁이 수도사를 데려와서 가디양의 입장을 단게 하려던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

그녀는 몸을 돌려 멧돼지에게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너는 어머니를 희생시키면서 까지 무익한 믿음에 어리석은 충성을 보였구나. 우리는 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미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루시파엘은 머리 옆쪽에서 커다란 머리카락 뭉치를 뜯어냈는데, 뿌리에는 창백한 피부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엉킨 머리카락을 멧돼지의 송곳니 사이에 매달고는 말을 내렸다.

그녀는 "내 몸의 살을 먹어라. 네게 주는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짐승은 냄새를 맡고 핏물 같은 피 묻은 제물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고, 그녀는 다시 "Veni, vita ad vitam. Altera pars facta."라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돌려 나사로를 쳐다보았고, 매끈한 붉은 두개골의 절반이 반짝였다. 그리고 는 여러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엘조,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믿음으로 쥐를 구원했으니, 이제 네가 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 돼지를 죽였으니, 이제 이 돼지는 네 거대한 악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무런 방해나 미혹 없이 네 소중한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 순간, 사지가 찢겨 나갈 때, 너는 울부짖으며 간청할 것이다."

너희 믿음이 왜 너희를 버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공포의 찬란함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루시파엘은 멧돼지가 변신하는 동안 공간을 내주었고, 멧돼지는 점차 몸을 부풀려 똑바로 선 거대한 짐승으로 변모했다. 송곳니는 길어지고, 발굽은 여섯 개의 발가락이 달린 발톱으로 변했으며, 거대한 뼈로 된 날개가 등에서 활짝 펼쳐졌다.

두 개의 뾰뚱한 기둥 같은 다리를 가진 돼지 거인은 완전히 똑바로 서서 40피트 높이의 동굴 안에서 20피트나 솟아 있었다. 검은 눈을 아래로 기울여 라자로를 노려보며 괴물은 으르렁거렸다. 그 깊은 울림은 동굴의 모든 표면에 메아리쳤다. 라자로

동굴 입구를 활긔 쳐다보자 거인이 그쪽으로 쿵쿵거리며 다가와 탈출구를 막아섰다. 라자로는 썬 소리를 내며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숨었고, 귀는 궁지에 몰린 고양이처럼 납작해졌다.

동굴 한가운데에 서서 루시파엘은 그들 사이를 번갈아 노력하였다. 그녀는 낄낄거리며 돌아서서 동굴 안쪽 벽을 향해 걸어가면서 라자로에게 소리쳤다. "이제 네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겠구나!" 그녀는 그의 기도 삽자가를 비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도 없는 나무를 휘둘러 볼 수도 있겠지?" 거인은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는데, 마치 악마적인 유머를 강조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동굴 벽에 멈춰 서서 몸을 돌려 나사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단지 너의 오만함 때문에, 나는 분명히 너의 죽음을 즐겼을 것이다!"

칸첼로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열어야 할 마지막 봉인이 아직 남아있지!" 메뚜기 떼 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루시파엘은 바위 표면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라자루스는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며 남겨졌다.

라자루스는 그녀가 떠난 방향을 활긔 보니 돼지 거인이 거대한 바위를 머리 위로 휘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악마는 그 바위를 그에게 던졌다. 날아가는 바위가 굉음을 내며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자, 그는 옆으로 몸을 날려 동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돌맹이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 동굴 뒤쪽으로 달려가 한쪽 면을 타고 불길 너머로 도망쳤다. 그는 발을 벌리고 허리를 굽힌 채 웅크리고 앉아 탈출할 준비를 했지만, 거인은 이미 그에게 달려들어 엘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쉬익! 불 옆, 바위 고리 위에 박쥐 똥 한 덩어리가 떨어져 그을린 돌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라자로는 박쥐로 뒤덮인 천장을 활긔 쳐다본 후 다시 불길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아직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불길에서 꺼냈다. 거인은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발톱을 펼쳤다. 그러나 둘 다 가만히 서서 서로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듯 눈을 마주쳤다.

나사로는 날개를 펼치며 솟구쳐 올랐다. 거인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해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발톱으로 그의 허벅지를 스쳤다.

"끼익!" 라자루스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동굴 천장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진했고, 햇불 불꽃을 천장에 쏘아대자 모든 박쥐가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동굴 전체가 순식간에 박쥐로 뒤덮였다. 박쥐들이 괴물을 휩쓸고 지나가며, 펄럭이는 날갯짓으로 괴물의 시야를 가리고 질식시켰다. 괴물이 포효하며 박쥐들을 할퀴자, 라자루스는 박쥐 떼 속으로 뛰어 들어 불타는 햇불을 괴물의 송곳니 사이로 던졌다. 그리고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급강하하여

뻗뻗하게 솟은 다리의 아치를 옆으로 꿰뚫고 지나가 좁은 출구를 뚫고 나갔다.

그는 좁은 통로에서 동굴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돼지 거인은 몸을 돌려 포효하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동굴 입구를 부수고 들어가면서 휘두르는 송곳니로 구멍을 더 넓혔다. 돌맹이가 쏟아지는 가운데, 악마는 동굴 통로에서 폭발하듯 솟아올라 산의 입구를 뚫고 나왔다. 날아오르는 라자로를 발견한 악마는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별들을 향해 솟구쳐 올랐고, 날갯짓 한 번 한 번이 도망치는 박쥐 떼를 통째로 떨어뜨렸다.

나사로가 뒤를 내려다보니 거인이 급히 그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갔다. 마침내 울퉁불퉁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 흙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돼지 거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나사로는 앞을 볼 수 있었다.

그 끔찍한 얼굴의 세부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공기가 차가워지고 그의 폐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라자루스는 숨을 헐떡이며 수평으로 자세를 잡았고, 빠근한 등과 날개의 고통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니 거인이 그의 자신 위에 올라타 발톱으로 발꿈치를 할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사로는 날개를 접고 급강하하여 남동쪽 지평선 아래로 거의 30도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악물고 날개에서 피를 흘리며 그는 아래로 맹렬하게 추락했다. 속도는 치솟았고, 바람은 포효했으며, 매서운 바람이 그의 피부에 화상을 입혔다. 나사로는 마치 곤두박질치는 별 같았다.

포효하고 매서운 바람을 뚫고 마침내 속도를 줄인 그는 눈을 떴다. 나무 꼭대기 안에 있었다! 라자로는 날개를 펼치고 위로 솟구쳐 올랐지만, 여전히 거대한 두 그루의 얽힌 가지 사이를 질주하고 있었다. 가벼운 가지들이 그의 몸을 후려치며 베고 멍들게 했다. 그는 안전한 고도로 탈출했고, 돼지 거인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서쪽 지평선에서, 그와 나란히,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 떠 있는 작은 점이 보였다. 라자로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작은 점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다시, 그는 울부짖으며 급강하했다. 마침내, 악마의 자식인 그 포식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만신창이가 된 채 피를 흘리며 한 시간 더 남동쪽으로 날아갔고, 마침내 발견했다.

그가 수도원 지도에서 기억해낸 강은 론 강이었고, 그 강은 ...으로 흘러들어갔다.

레온 만과 대양. 론 강은 그의 이정표였고, 바로 그를 이탈리아로 이끌 길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차를 돌려 유리처럼 매끄러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한 시간이 더 흘러 동쪽 지평선에 붉은 선이 가늘게 펼쳐지며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다. 따스해진 온기를 느끼며 그는 모든 악마의 거인, 사납고 작열하는 태양이 곧 하늘을 뒤덮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라자로는 강 서쪽 땅을 살살이 뒤지며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튼튼한 은신처를 찾기 위해 낮게 선회했다.

낮의 밝은 빛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산등성이 옆면에 난 좁은 틈이었다. 그는 구멍 앞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그를 낮의 치명적인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한 안식처였다. 동굴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던 그는 결국 손과 무릎으로 엎드렸다. 쥐가 나고 땀에 젖고 피를 흘리며, 그는 동굴 바닥에 쓰러져 극도의 탈진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목동 한 명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 달린 새 한 마리를 목격하자 "새벽 하늘에서 사람이 쏜살같이 내려와 동굴 속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재빨리 도망쳤다.

날이 저물고 마지막 붉은 노을빛이 사라질 무렵, 라자로는 귀를 쫓긋 세우고 벌떡 일어나 팽팽한 목줄에 매달려 짓어대는 세 마리의 개에게 쉿 소리를 내며 동굴 뒤쪽으로 물러났다. 건장한 체격에 수염이 덩수룩한 개 주인은 가족줄에 기대앉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또 다른 남자가 그의 옆으로 슬며시 들어와 무언가를 휘두르며 햇불을 든 라자루스는 다시 짐승들을 향해 쉿 소리를 냈고, 짐승들은 짖는 소리라기보다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라자루스를 발견한 햇불을 든 자는 동굴 밖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햇불들을 향해 소리쳤다.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세요! 입구를 봉쇄하세요!" 햇불이 밤공기 속에서 휘휘 움직였다.

세 번째 병사가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혼란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저 빌어먹을 짓어대는 개들을 당장 여기서 내쫓아!" 라고 외쳤다.

건장한 병사가 햇불을 갈라놓으며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자,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나리께 악마를 잡았다고 전하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사님."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사로는 급히 떠나가는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움직이는 소리와 햇불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든 갑옷 입은 기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석궁병들이 줄지어 들어와 앞쪽 벽에 줄지어 서서 나사로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기사는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악마에게 무기를 겨누어라. 그리고 내 몸에는 쏘지 마라."

뒤로 물러서라." 그는 나사로에게로 돌아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칼을 휘둘렀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나사로는 몸을 바로 세웠다. "나를 악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할 수 있냐고 묻는 건가?" 그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말했다. "나는 악마가 아니고, 그렇다, 나는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기사는 칼을 내렸다.

"직함으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가르 디안 수도원의 라자루스 고구 기사님. 저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혼자 오셨나요? 혹시 당신처럼 날개와 이빨을 가진 다른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나사로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틀림없군." 기사가 말했다. "말해 보시오, 이봐, 자네 악마들이 이 땅에 큰 역병을 몰고 온 건가?"

"나는 악마가 아니며, 악마의 일종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지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히 당신의 동굴과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는 라자로에게 칼을 겨누며 말했다. "내 부하들에게 덤벼들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네놈을 베어버리겠다." 그는 몸을 돌려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기사가 동굴을 나서자 그의 궁수들은 라자로를 향해 치명적인 화살을 쏘아댔다.

남루한 몰골의 병사가 긴 단검을 뽑아든 채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는 위협적인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자네를 고기 케이크보다 작은 조각으로 토막 내 버릴 것이오." 그는 나사로에게 경고했다. 칼날을 비틀며 말했다. "자, 이제 앉아라, 악마 같은 놈!" 라자루스는 자리에 앉으며 한 궁수가 다른 궁수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악마 그 자체다!"

병사가 물러서자 햇불을 든 사람이 나사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하라. 내가 너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는 햇불을 높이 들어 올려 나사로를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웅성거렸다.

"네가 악마냐?" 햇불을 든 남자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좀 더 사나운 악마를 잡아왔지. 눈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뿜은 피투성이에, 꼬리는 길고 가시투성이었어."

그는 동료들에게 돌아서서 빠진 이빨 사이로 킬킬거렸고, 동료들도 불안한 듯 킬킬거리며 화답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해! 그는 개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만 물어뜯어도 네 심장을 삼켜버릴 수 있어!"

"입을 벌려 봐." 햇불을 든 병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덧니가 드러난 입을 벌려 시범을 보였다. "아아." 궁수들은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무시했다.

그러자 궁수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에게서 떨어져라! 그는 너희에게 마법을 걸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역병을 퍼뜨릴 것이다!"

궁수의 말에 놀랐는지, 햇불을 든 병사는 마치 나사로에게 물린 것처럼 행동하며 황급히 도망치면서 그에게 불꽃을 휘둘렀다. 병사들의 무기가 옮겨졌고,

아마도 좀 더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는 나사로를 비난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당신의 능력은 그분 앞에서 무력하다!" 그는 땅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다시 중얼거리며 십자가 자국에 황급히 손을 댔다. 나사로는 시선을 햇불 든 남자의 침으로 떨구고는 그들을 무시했다.

동굴이 없어지자 병사들은 돌아가며 머리를 동굴 안으로 집어넣어 그를 뺏히 쳐다보았다. 마침내 나사로는 말이 고삐를 당기는 발굽 소리와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속에는 리듬감 있는 리듬이 담겨 있었다.

muffled voice가 "비켜! 길을 내!" 라고 외쳤다. 햇불이 흔들리며 세 남자가 죄수용 쇠사슬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라자로는 석공들이 줄지어 서 있을 때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라자로 앞에 쇠사슬 더미를 동굴 중앙에 내려놓았다.

기사는 여전히 투구를 팔 아래에 끼고 앞으로 나아가 나사로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쇠사슬은 너를 묶기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선택을 분명히 밝히라." 초조한 무기들이 움직였다.

나사로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받아들이면, 당신들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고, 나를 사로잡힌 악마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거부하면, 당신들은 내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고, 죽은 악마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기사는 반박하며 말했다. "이 명령들은 제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주 이신 랑구 아네즈 백작 세리스 달시쿠르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알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 앞에서 구속을 감수하셔야만 합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해코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기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아마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간청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나의 주군은 정의로우시니,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능력 중 하나를 이용해 그를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도와준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나사로가 물었다.

"나리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가 당신을 잠시 제지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사로는 나람신과 그리스도 안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회상하기를, 나람신은 공의회의 자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나사로의 눈에는 두 사람 모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는 사슬 더미 앞에 서 있었다. 어쩌면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희미한 이성과 엄청난 의심, 그리고 산더미 같은 생각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고, 그 결과 병사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대낮에 나사로가 동굴 바닥에 잠들어 있을 때조차 악마가 잡혔다는 소문은 눈부신 십자군 전쟁처럼 순식간에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는 되풀이될 때마다 점점 더 허황되게 변해갔다. 수많은 소문 중 가장 최근의 소문은 사탄이 동굴에서 살해된 제사장들의 심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로테스크 ~ 고딕 서사시 (저자: GE 그레이븐) || 제13장 ||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https://www.gothicnovel.org> 모든 권리 보유 (c)1998 - 미국

그를 사로잡기 전에, 그가 온 땅에 큰 역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

자유민과 계약 노동자, 병사, 사제, 여자와 아이들이 달시쿠르 성문 앞에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교황청 서기관들이 후세에 정확한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찾아왔다 .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할 것 없이 모두 악마, 마귀의 왕을 보기 위해 모였다 .

마치 사탄 자신이 자신의 모든 악행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조물에 대한 행위.

[제13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